

간추린 소식



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우회도로 개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심을 둘러 가는 성산구 양곡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6.8km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1월 30일 개통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시와 함께 현재 진해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국도 2호선)의 포화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 지체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년여 기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되었다. 이 사업으로 해당 구간 이용자들은 기존 국도 2호선 통행에 비해 이동 거리 약 1.2km, 이동시간 약 10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8.0km, 16분 → 개선 6.8km, 6분).

사업 개요

- (사업명)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 (사업량) L=6.78km, 4차로 신설
- (사업비) 1,825억원
- (기간) 2013. 06. ~ 2023. 11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1.28)

용어해설



RE100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글로벌 RE100 가입 기준은 연간 전력 사용량이 100GWh 이상 또는 표준 선정 1,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고 브랜드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2050년까지 100%의 목표로 해야 한다. 구글, 애플, GM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하였으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이 동참하였다. 글로벌 RE100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은 ① 태양광, ② 풍력, ③ 수력, ④ 해양, ⑤ 지열, ⑥ 바이오에너지와 신에너지원인 ⑦ 그린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연료전기까지 7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1. 그린피스 코리아, <https://www.greenpeace.org/korea/>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knrec.energy.or.kr/>
3. 한국에너지융합협회, 2022, 국내 RE100 시장분석 및 자문용역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심교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 아님을 밝힙니다.

